

2019 봄 작가, 겨울 무대 시놉시스

1. RESET (김옥미)

주제 및 집필의도

고통스러운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라는 착상으로부터 이 작품은 출발하였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은폐하거나 외면하려고만 하는 시대에, 리셋보다는 오히려 정체성을 자각하고자 하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인간적이란 것은 무엇인지, 고통과 기억은 어떻게 인간을 실존케 하는지 그려내고자 한다.

'파란'이라는 주인공은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면서 자신의 인생을 RESET하지 않아도 RE-START 해내는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RESET>을 통해 SF 장르적 재미는 물론 이 시대의 고통 속에서 미래로 향하는 희망을 소환하고자 한다.

등장인물

파란(女/25) : 안드로이드

박사(男/50) : 박사. 인간.

기채(男/25) : 안드로이드

로봇1 : 안드로이드 실험체

로봇2 : 안드로이드 실험체

로봇3 : 안드로이드 실험체

시놉시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때는 로봇이 개발된 머나먼 미래다. 인류는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 로봇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 축적되면 자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파란은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로봇을 복원하는 꿈을 위해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파란과 박사가 고통스러운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시연 중이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파란은 자신의 기억이 뒤엉켜 있음을 깨닫는다. 박사는 파란이 안드로이드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파란을 리셋한다. 박사는 파란의 배우자로서 파란의 평생 동안 자신이 안드로이드임에도 인간이라고 알게끔 프로그래밍 해왔다.

얼마 후 파란과 박사는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한다. 가구를 옮기던 와중 기채가 나타난다. 기채는 박사에게 자신이 바로 박사가 실패했던 로봇들 중 하나라고 말한다. 자신은 자체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간과 식별 불가능한 안드로이드로 완벽히 재탄생했다고 말한다. 박사는 기채가 자신이 범을 어기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개발했던 로봇이 기채였음을 깨닫는다. 박사는 기채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기채는 완전한 인간이고 싶어 한다. 기채는 박사에게 자신이 안드로이드라는 기억을 리셋 해달라며 파란의 정체성의 비밀을 빌미로 박사를 협박한다. 박사와 기채는 함께 안드로이드의 기억 조작에 대해 연구할 것을 서로 약속한다. 박사는 기채의 기억 조작을 위해서는 평생 동안 일상을 함께하면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채는 박사를 불신하며 함께 리셋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고 말한다. 파란은 연구원으로서 버려진 로봇들의 복원을 위해 그들의 연구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다.

기채와 박사는 연구를 위해 기채의 분신을 만들어보기로 한다. 기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해체된 상태로 버려진 자신이 바라보았던 찬란한 봄의 벚꽃이었다고 말한다. 자신의 첫 업그레이드는 죽기 직전만큼의 고통을 자각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기채의 분신과도 같은 로봇1이 탄생한다. 인간과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로봇1을 보고 파란은 감동한다. 그러나 로봇1의 오류가 발생하고, 로봇1의 오류로 인해 기채는 로봇1을 부숴버린다.

그들은 다시 로봇2를 탄생시키지만 파란은 로봇2가 부숴질까봐 염려한다. 기채는 로봇1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파란을 위해 로봇2를 부숴버리고 로봇1과 2를 조립해 로봇3을 만들어낸다. 모두의 분신을 만들어보자고 말한다. 그들은 로봇3에 각자의 행복한 기억을 주입한다. 기채와 박사는 자신의 행복한 기억이 파란을 처음 만났던 찬란한 봄이라고 말한다. 파란은 자신이 로봇1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고 말한다. 로봇3이 탄생하지만 로봇3은 모든 실상을 알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안드로이드다.

로봇 3이 오히려 파란의 기억이 뒤엉킴을 고발하자 파란은 로봇3을 부숴버린다. 급히 박사는 파란을 리셋한다. 기채는 파란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채는 버려진 로봇 공장에서 만난 로봇의 모든 얼굴은 파란이었음을 박사에게 말한다. 기채는 파란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며,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한다. 박사는 파란이 실은 섹스 로봇이었으며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지금껏 리셋해온 거라고 변명한다.

박사는 파란에게 다시 조립한 로봇3을 통해 파란이 로봇3을 부숴던 장면을 보여준다. 파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박사는 파란에게 태엽을 건네며 언제든 리셋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준다. 파란은 태엽을 마다하고 기채를 만나러 향한다. 버려진 로봇 공장에서 기채와 파란은 조우한다. 파란은 기채 또한 로봇이었음을 알게 된다.

파란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려 한다. 파란은 자신의 모두 복원해낸다. 섹스 로봇이자 실험체였던 당시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게 된 파란은 그럼에도 리셋을 원치 않는다. 파란은 기채와 함께 버려진 로봇들을 복원하겠다고 말한다. 박사에게도 연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박사는 거부한다. 파란이 결국 박사를 떠나자 박사는 집에 있던 로봇들을 폭파하고 자살한다.

파란은 기채와 함께 로봇 공장으로 향한다. 얼굴만 사라진 자신의 흔적들을 바라본다. 기채는 파란에게 태엽을 감아 자신을 리셋해달라고 말한다. 기채는 파란과 다시 한 번 새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파란은 기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옮겨 담는다. 파란은 기채의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한다. 기채가 리셋 되고 파란은 기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선택지를 제안하지만 기채는 그저 자신은 파란에게 심장이 뛰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키스한다. 벚꽃이 피는 나무 아래서 그들은 서로 첫 인사를 나눈다.

2. 반성문 - 살인 기억 (김환일)

<p>주제 및 집필의도</p>	<p>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희생자이지만 자신을 가해자로 착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을 고발한다. 또한 가해자는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해자만이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성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꼬집는다.</p>
<p>등장인물</p>	<p>노인(남, 70대)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끔찍한 폭력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잃은 치매 환자. 30여 년 전 강요에 의해 복지원의 사망자들을 암매장했던 기억만 남아있어 자신을 살인자라고 착각한다. 예전에 사람들을 묻었던 곳을 찾아내라며 사장과 실장을 위협한다.</p> <p>사장(남, 40대) - 다찾아 흥신소 사장. 전직 강력계 형사. 법률 사무실을 연상시킬 만큼 깔끔한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 고급진 취향의 소유자. 월세에 허덕이면서도 법원 정문 앞 법조빌딩 로얄층을 고집한다.</p> <p>실장(여, 30대) - 다찾아 흥신소의 유일한 직원. 과거 프리랜서 PD. 사무실 정보통신 담당으로 해킹을 비롯한 도청, 미행, 몰카 촬영을 한다. 월세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싼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의 허세를 비웃으며 티격태격.</p> <p>그 외.</p>
<p>시놉시스</p>	<p>1장 - 커다란 가방을 끌고 다찾아 흥신소에 찾아온 노인. 지나치게 깔끔한 사무실의 모습에 흥신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과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사장과 코믹한 실랑이. 죽은 사람도 찾아주느냐는 노인의 질문에 사장은 당황한다. 그 이유를 묻자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는 반성문을 쓰려고 한다는 노인. 그런데 찾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p> <p>마침 잠복 중 용변을 보러 뛰어온 실장 등장한다. 사장과 실장의 코믹한 티격태격. 두 사람은 노인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 쓰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찾는 사람이 서른 명도 넘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많은 사람을 노인이 죽여 암매장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인의 가방 속에 시체가 들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p> <p>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암매장한 장소를 찾아달라는 노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삼단봉을 움켜쥐는 사장과 실장. 그러나 놀라운 힘으로 삼을 휘두르는 노인의 위협에 겁을 먹는다.</p> <p>2장 - 사장과 실장의 과거. 형사로서 살인 용의자를 추조하는 사장. 그러나 증거가 없어 용의자를 놓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한다. 프리랜서 PD였던 실장은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불법 해킹으로 자료를 빼돌리다 고소당한 상태. 그러나 자신의 불법 행위만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p> <p>두 사람 모두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방패로 전략한 사실에 분노하고, 사장의 제의에 의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다.</p>

3장 - 과거 사장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다고 자책하는 실장. 해킹 실력을 발휘해 노인의 과거를 추적하지만 암매장 장소에 대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노인이 기억 일부를 되찾고, 암매장 장소가 바닷가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최후의 수단으로 가방 속 시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장은 형사시절의 경험을 통해 시체는 노숙자이며, 노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음을 알아낸다.

노숙자라는 말에 영감을 얻은 실장은 검색을 하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노인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4장 - 1986년. 택시기사였던 젊은 시절의 노인은 부산까지 손님을 태우고 갔다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원에 끌려간다.

수용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리자는 노인에게 시체들을 암매장하도록 강요한다. 구덩이를 파던 중,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노인. 그러나 산 채로 묻으라고 강요하는 관리자. 노인은 이를 거부하지만,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졸라 고통을 덜어주고 시체를 묻는다.

5장 - 사장과 실장은 복지원 시절 노인의 기록을 찾아 보여주며 살인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노인은 사람을 묻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살인자라고 울부짖는다. 그리고 사람들을 묻었던 장소를 말하라며 샅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사장은 노인에게 맞서며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노인의 광기는 절정으로 치달는다. 자신을 끔찍한 괴물이라 부르며 지난날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흘린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가 진정된다. 사장은 노인이 처음부터 반성문을 쓰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끔찍한 폭력의 사례가 훨씬 많을 것임을 짐작한다. 실장은 정작 반성해야 할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장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를 세상에 알리는 다큐를 찍자고 실장에게 제안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세상을 바꾸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6장 - 노인의 환상 속에 아내가 등장한다. 그 동안 사라진 남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을 아내에게 쓰는 눈물의 반성문.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었던 죄보다 더 큰 죄. 아내에게 돌아가지 못한 죄. 더 이상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그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아내보다 자신이 더 불행하게 살았던 죄.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노인.

노인은 환상 속에서 아내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이내 다시 기억을 잃고 또 다시 흥신소를 찾아 나선다.

3. 자유를 따르며 (오현근)

주제 및 집필의도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의 쓸모없는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암담한 현실 세계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등장인물	준혁: 30대 중반 남성 찬수: 30대 중반 남성, 준혁과 고등학교 동창 세희: 30대 중반 여성, 찬수의 약혼자, 찬수와 동갑 엄마: 50대 후반 여성, 준혁의 엄마 찬영: 30대 중반 남성, 준혁과 찬수의 고등학교 동창
시놉시스	<p>- 1장: 어느 날 저녁,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준혁의 집에 찬수와 세희 커플 찾아온다. 3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준혁과 찬수는 처음부터 신경전을 벌인다. 찬수는 의자가 없는 준혁의 집을 보고 대뜸 의자를 사 오겠다고 퇴장한다. 단둘이 남은 준혁과 세희, 은밀한 대화를 시작한다.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세희는 교정관이었다고 답한다. 경제권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묻자 세희는 목이 마르다고 한다. 준혁은 미소를 띠며 와인 한 병을 준비한다. 하지만 와인오프너가 없어 와인병을 무리하게 탁자와 바닥에 친다. 세희는 와인병이 부서질 거라고 경고한다. 준혁은 멈춘다. 준혁이 세희의 손을 잡는다. 세희의 약혼반지를 발견한다. 세희가 와인병이 멀쩡해서 기쁘겠다고 준혁에게 말한다. 준혁은 갑자기 광인처럼 웃으며 과거 고3 시절 찬수가 대형 매장에서 쇼핑카트를 타다가 와인 코너를 모조리 박살 낸 에피소드를 세희에게 말한다. 준혁의 긴 독백이 끝나고 세희와 준혁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다.</p> <p>- 2장: 조금 후, 찬수가 새로 사 온 스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혁은 나가 있는 상태이다. 세희가 바람 쐬러 외출하겠다고 하자 찬수가 탁자 위에 와인이 무엇인지 묻는다. 와인이 아직 따지지 않은 것을 보고 준혁이 와인 따개를 사러 매장에 갔는지 묻는다. 세희 밖으로 퇴장한다. 이윽고 세희와 준혁 함께 들어온다. 준혁의 손에는 무언가를 가득 담은 장바구니가 들려있다. 준혁이 자신이 사 온 물품들을 탁자 위에 늘어 놓는다. 와인오프너, 여러 나라 국기, 와인병들이 가득하다. 찬수가 준혁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묻자 1막에서 언급된 찬수가 와인병을 박살 낸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며 찬수를 자극한다. 찬수 준혁을 주먹으로 친다. 찬수,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는 준혁을 향해 투자 망해서 불쌍해서 와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행동이냐고 나무란다. 휴지 꾸러미를 찬수에게 집어 던지는 준혁. 찬수와 세희 퇴장한다. 준혁 주머니에서 세희의 약혼반지를 발견하며 미소 짓는다.</p> <p>- 3장: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엄마가 집을 청소하며 준혁을 나무라고 있다. 탁자 위에 와인병들을 치우려고 하자 준혁이 말린다. 준혁이 약혼 반지를 보여주며 반지를 찾으러 누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속상해하는 엄마에게 준혁은 와인오프너 없이 어떻게 와인병을 딸 수 있는지 묻는다. 준혁이 이해</p>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자 엄마 걸레를 집어 던진다. 화장실로 터벅터벅 들어가는 준혁.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세희가 도착한다. 세희에게 차를 권하는 엄마. 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최근에 대형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와인 코너에서 일한다고 말한다. 엄마, 세희에게 준혁의 애인이냐고 묻는다. 찬수의 약혼자라고 밝히는 세희. 세희 엄마에게 준혁의 모습이 초취하다고 말한다. 엄마, 누구보다 처절하게 공부했던 준혁을 옹호하며 누구나 겪는 고난을 마주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준혁이 자신에게 와인 따개 없이 와인 여는 법을 아는지 물어봤다고 말한다. 자신은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쓸모없는 짓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세희 퇴장. 이윽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준혁. 엄마, 준혁에게 반지를 꼭 돌려주라고 말한다.

- 4장: 같은 날 저녁, 찬수의 집. 찬수, 찬영의 전화를 끊고 준혁도 오늘 저녁에 올 거라고 세희에게 전한다. 음식을 사러 밖으로 퇴장하는 찬수. 이윽고 준혁이 도착한다. 반지에 관해 이야기는 준혁. 세희는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말한다. 더워하는 준혁에게 욕실로 가서 목욕하라고 권하는 세희. 이윽고 음식을 사러 간 횃집에서의 일로 얼굴이 상기된 찬수가 돌아온다. 이때 속옷만 입고 욕실에서 나오는 준혁. 그런 준혁을 보고 어이없어하는 찬수. 준혁이 찬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찬수와 준혁의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그러다 갑자기 속옷마저 벗으려는 준혁. 찬수, 이를 필사적으로 만든다. 둘이 싸우는 동안 말끔한 차림을 한 찬영이 들어 온다.

- 5장: 조금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상태이다. 과일을 들고 들어오는 찬영과 세희. 준혁과 찬수 또다시 서로 으르렁거린다. 이를 말리는 찬영. 세희, 찬영과 준혁에게 학창시절에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묻는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준혁. 하지만 찬영은 누가 전교 1등을 몇 번이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준혁, 찬영이 기자일을 그만두고 새로 하는 일을 빌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찬수, 이를 말리며 술이나 더 마시자고 권한다. 세희가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찬수와 찬영 와인을 사러 밖으로 퇴장한다. 단둘이 남은 준혁과 세희. 준혁, 세희에게 찬수가 반지 잃어버린 걸 알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본다. 세희, 고작 반지 하나 잃어버린 것으로 준혁이 왜 그렇게 재밌어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문한다. 준혁, 반지는 찬수와 세희 커플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라 답한다. 준혁, 세희에게 반지 잃어버린 사실을 직접 찬수에게 말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라고 한다. 준혁, 주인집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게임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며 퇴장한다.

- 6장: 잠시 후 늦은 저녁, 준혁 자신의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다. 이윽고 찬영과 찬수가 집으로 찾아온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세사람. 찬수, 준혁에게 자기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묻는다. 준혁, 찬수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신이 투자를 했고, 그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말한다. 찬영, 준혁이 무모하게 투자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설명한 뒤, 자신이 문화부 기자일 때 썼던 '자유와 일탈'이라는 주제의 칼럼을 예로 들며 자유와 일탈의 차이를 설명한다. 준혁, 찬수에게 세희가 지금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게 자유인지 일탈인지 물으며 자극한다. 찬영, 이를 말리며 준혁에게 지금 자신이 망한 상황을 보가면서 행동하라고 나무란다. 이 말을 듣고 찬영을 자극하는 준혁. 점차 고조되다가 찬영이 준혁에게 키스한다. 준혁, 미친 사람처럼 '와인 게임'을 시작한다. 준혁, 찬수에게 탁자 위에 있는 와인병들 중 하나에 세희의 약혼반지를 넣어 놓았다고 밝힌다. 폭발 직전까지 가는 찬수. 그 와중에 세희 들어와 게임에 동참한다. 세희와 찬영이 와인을 고를 때마다 와인을 바닥에 쏟는다. 찬수, 준혁이 혹시 약혼반지를 돈 때문에 훔친 건 아닌지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를 듣고 분노에 차서 남은 와인을 모두 쏟아버리는 준혁. 반지가 나오지 않는다. 준혁, 반지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으며, 세희가 '고작 반지'라고 했다는 사실을 말하며 찬수를 자극한다. 찬수와 준혁, 와인이 흥건한 바닥에서 나뒹군다. 이를 말리는 찬영. 세희, 나머지 남은 와인 한 병을 바닥에 쏟는다. 반지가 나오지 않는다. 반지는 원래부터 가짜였으며, 진짜 반지는 찬수 어머니가 찬수가 고3 때 깬 와인 보상금으로 쓰느라 팔아버렸다고 밝힌다. 지친 상태로 퇴장하는 찬수. 준혁의 얼굴을 휴지로 닦아준 뒤 퇴장하는 찬영. 세희, 준혁에게 취소하듯 준혁의 행동의 의도를 물어본다. 대답하지 못하는 준혁. 세희, 준혁에게 죽지 말라고 말한 뒤 와인을 권하며 퇴장한다. 준혁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막 내림.

4. 미라 (이주호)

<p>주제 및 집필의도</p>	<p>사라져가는 것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불가능한 욕망에 대해, 다룬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그 비극적 욕망이 만들어낼 파멸을 구부러뜨릴 수 있는 상상력을 보여주고 싶었다.</p>																						
<p>등장인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미숙</td> <td>(30대 중반의 약사)</td> </tr> <tr> <td>남편</td> <td>(30대 초반의 미라)</td> </tr> <tr> <td>공장사원</td> <td>(50대 중반)</td> </tr> <tr> <td>시취검침원</td> <td>(60대 후반)</td> </tr> <tr> <td>시취 제거반 1</td> <td>(20대 후반)</td> </tr> <tr> <td>시취 제거반 2</td> <td>(20대 후반)</td> </tr> <tr> <td>김 변호사</td> <td>(30대 후반)</td> </tr> <tr> <td>이웃 남</td> <td>(50대 후반)</td> </tr> <tr> <td>이웃 여</td> <td>(50대 중반)</td> </tr> <tr> <td>보험사 직원</td> <td>(40대 초반)</td> </tr> <tr> <td>소년</td> <td>(10대 후반, 미라가 되어가는 소년)</td> </tr> </table>	미숙	(30대 중반의 약사)	남편	(30대 초반의 미라)	공장사원	(50대 중반)	시취검침원	(60대 후반)	시취 제거반 1	(20대 후반)	시취 제거반 2	(20대 후반)	김 변호사	(30대 후반)	이웃 남	(50대 후반)	이웃 여	(50대 중반)	보험사 직원	(40대 초반)	소년	(10대 후반, 미라가 되어가는 소년)
미숙	(30대 중반의 약사)																						
남편	(30대 초반의 미라)																						
공장사원	(50대 중반)																						
시취검침원	(60대 후반)																						
시취 제거반 1	(20대 후반)																						
시취 제거반 2	(20대 후반)																						
김 변호사	(30대 후반)																						
이웃 남	(50대 후반)																						
이웃 여	(50대 중반)																						
보험사 직원	(40대 초반)																						
소년	(10대 후반, 미라가 되어가는 소년)																						
<p>시놉시스</p>	<p>남편이 산업재해로 병 든다. 약사인 미숙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도 포기한 몸을 집으로 데려와 연명치료에 들어간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는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소송을 걸어온다. 긴 소송에 남편과 미숙은 지쳐간다. 병원에서 선고한 죽음의 날이 6개월이 지났지만 미숙의 처방과 간호 덕분에 남편은 살아있다. 그러나 단 한 숨도 잠들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견디고 있다.</p> <p>이웃들은 처음 미숙의 억울함에 동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이 단지 합의금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 아픈 남편을 죽지 못하게 치료해나간다고 수군거린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속에서 미숙은 남편을 치료해나가지만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해오자 절망한다.</p> <p>동네에선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한다. 검침원은 시취탐지기를 들고 다니며(가스 누출탐지기와 비슷하다) 집집마다 죽은 자를 찾아내고 있다. 소송은 4일 후면 결판이 난다. 그 시간까지만 견딜 수 있다면 미숙의 모든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대가로 미숙이 운영하던 약국도, 어렵게 마련한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 남편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아차릴 때마다 예민해지고 가정의 불화는 확장 된다.</p>																						

남편의 간호에만 매진한 탓일까 아이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차라리 죽음을 작심한다. 미숙의 이 불가능한 욕망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면 합의를 요구하는 공장직원이나 시취검침원, 미숙이 남편을 통해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고 믿는 보험사 직원 이웃 김 변호사가 등장하여 미숙을 괴롭힌다.

그 사이 미숙의 방에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남편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미라화를 선택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대로는 남편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장에선 남편이 하루빨리 죽어 이 소송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미숙의 결의는 이미 현실적 슬픔을 넘어서 있다.

작품 미라는 사회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산업재해로 다친 남편을 보관하며 남편의 부활을 계획하는 아내(약사)의 이야기다. 모두가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절정 가운데 미숙은 남편을 20년 만에 다시 출근시킨다.

5. 뒤 돌면 앞 (조은희)

주제 및 집필의도	<p>남겨진, 떠난,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정류소에 모인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장소에 있다. 남겨진 이들은 현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 떠나는 이들은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과거, 현재를 그리워한다. 그런 부분이 뒤를 도는 당사자에겐 앞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지금의 앞을 다루고 싶었다.</p>
등장인물	<p>김영은: 30대, 남자. 한때, 개였으나 사람이 된 이.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정류소에 한 없이 앉아 있다. 이나빈: 20대, 여자. 버스를 놓치는 사람. 이원호: 70대, 남자. 정류소에 갇힌 사람. 장근우: 20대, 남자.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 김호진: 30대, 여자. 줄을 잡아 당겼던 이.</p>
시놉시스	<p>흠먼지 없이 횡한 날, 영은은 정류소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영은에게 버스에 대한 정보를 묻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나빈은 학원 노선의 버스를 매번 놓친다. 나빈의 외할아버지인 원호는 그런 나빈을 걱정해서 따라다닌다. 나빈의 주머니와 가방은 원호가 챙겨준, 택시비로 가득 차 있다. 원호는 정류소로 향할수록 그곳에 있는 영은이 궁금하다. 영은은 버스를 놓치는 나빈이 의문이다.</p> <p>별이 뜨는 밤, 나빈과 원호는 공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과거의 일 때문에 다툼을 한다. 나빈은 화나서 집에 가버린다. 그날 밤, 원호와 나빈은 가족 부양에 지쳐 집을 떠난 엄마의 이야기를 하다가 미래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 나빈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터로 간다. 영은은 누군가에게 쫓긴다.</p> <p>공터에서 주인 있는 고구마를 캐고 있던 영은은 나빈과 마주친다. 영은은 자신을 찾는 전단지 때문에 정류소를 박차고 뛰어나왔다는 사실을 나빈에게 들킨다. 영은은 가족이었던 호진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서 집을 나왔다고 말한다. 나빈은 영은의 진심을 듣고, 자신의 엄마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친구가 되려는 마음을 접는다. 나빈은 자신이 할아버지를 떠날 명분, 엄마와 같은 편에 서보게 해주어서 영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다. 나빈은 그날 밤 떠날 짐을 싣는다. 그런 영은의 눈앞에 근우가 나타난다.</p>

근우는 자신을 보고도 짓지 않는 개, 영온이 특이하다고 한다. 근우는 1년 전부터 정류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영온은 근우가 나빈과 같은 꿈을 가진 친구였지만 현실의 반대에 부딪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근우의 목에는 빨간 줄이 있다. 목줄에 묶였던 개, 영온과 목에 줄을 감았던, 근우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근우는 나빈의 꿈을 반대하는 원호를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이유로 원망한다. 그 당시 원호는 나빈의 공무원 시험 날짜가 임박한 나머지 근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나빈에게 숨겼다. 원호는 나빈이 이루지 못한, 하지만 노선을 바꿔서라도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한다. 그렇게 현실과 앞날을 모두 감당하려는 원호.

흙먼지가 거센 오후, 나빈은 영온을 찾아온다. 나빈은 영온이 효진에게 떠날 신호를 보냈을까? 혹시 우리 엄마도 나에게 보내지 않았을까?하는 마음이다. 이에 영온은 "언제나 떠나는 것들은 발버둥을 쳐." 라고 한다. 나빈은 자신이 그 신호, 발버둥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원망을 영온에게 푼다. 떠난 사람에 대한 화풀이다. 반대편 입장에 서 있었지만 이젠 같은 자리인 나빈과 영온. 그러나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 그 와중에 영온의 주인이었던 효진과 영온이 마주치게 되는데...

6. 탈날라 하우스(가제) (차인영)

주제 및 집필의도	<p>1. 너와 나의 연결고리 : “사람” 보이지 않아 무서운 것은 단연 사람이 아닐까. <인생은 타타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천상천하유아독존, 나만 잘 살면 돼!> 매일 정신을 무장해보지만 상처주고 상처받고 다독이고 손 내밀고 그 손을 잡기도 하고 놓아버리기도 하는, 결국 우리는 “사람”이다.</p> <p>2. 집의 의미 : 집은 한 인간의 삶이자 죽음이다. 금수저가 아니면 평생 벌어 모아도 집을 못 사고 집이 없어 결혼도 아이도 미래도 감히 꿈꾸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의 어른이다. 집이 우리에게 의식“주”로서 기능하며 그리움과 정겨움을 불러오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 시대. 집이란 무엇인가.</p>
등장인물	<p>집주인 : 본명 이유나. 자가를 소유했으나 정작 그 집에 살지는 못하는 여자. 불법인 줄 알지만 돈 때문에 애정 가득한 그녀의 집을 숙박업소로 내놓고 마는데...!</p> <p>손님 : 본명 이유나. 자신의 생일 날, 집주인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집에 입실한다. 과연 그녀의 목표는?</p> <p>아랫집 남자 : 집주인의 한 층 아랫집 남자. 예민층 불만층 까탈층 층간소음감지최고만렙인. 마침내 밤새 이어진 층간소음에 폭발해 윗집의 초인종을 누른다!</p> <p>주민회장 :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그래서 외롭고 그러니까 갑질한다.</p> <p>경비 : 잡초 근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가장.</p> <p>경찰 : 말은 임무에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공무원.</p> <p>붉은 남자 : 손님의 남자. 사건의 열쇠.</p>
시놉시스	<p>줄거리 :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소중한 집을 숙박업소로 내돌릴 수밖에 없는 집주인과 이 집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으려 입실한 손님의 스펙터클한 비밀 사수 코미디.</p> <p>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다. 집주인 이유나는 서울의 알토란으로 꼽히는 한성리버뷰의 10평짜리 자기 소유의 원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른다. 비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집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람들과 공유할 지라도,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에 청소</p>

하는 단 몇 시간만 이 집에서의 시간이 허락될 지어도, 이 집은 엄연히 그녀의 집인 것이다! 이 집은 그녀에게 전부이며 삶의 동반자이고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숨을 품어주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손님은 대체 뭐지?

퇴실 1시간 전에는 정시에 퇴실할 것인지 숙박연장을 할 것인지 체크인시간을 늦출 것인지 분명히 알려달라고 신신당부 했는데 연락은커녕 살았는지 죽었는지 답이 없다. 메신저 앱에서 우연찮게 알게 된 손님의 생일은 바로 오늘. 기회다 싶어 얼른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사람이 죽어 있다.

그것도 웬 건장한 남자가. 소담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기 그지없던 집주인의 공간에 핏자국들과 진한 오줌 지린내가 짝 들어찼다. 어떡하지, 어떡해야 되지. 어떻게 내 집에 이런 일이! 왜 내 집에 이런 일이! 아니 어쩌다 내 집에 이런 일이! 왜 하필, 왜 내 집이어야 했냐, 정말로 꼭 내 집이어야만 속이 시원했냐!

이유나 좀 알고 싶다고 외쳐보지만 손님은 집주인의 말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꾸만 가방에서 번개탄을 꺼내며 죽어버리겠다고. 생일인 오늘 이 집에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도 안 된다. 황금 같은 이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말이다. 그리고 왜 자꾸 옷깃도 안 스쳐본 집주인에게는 같이 죽자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

집주인은 살고 싶다. 이 집에서 오래오래 영원히, 어쩌면 돌아올 지도 모를 엄마를 기다리며 쭉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이 집을 불법 숙박업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춰야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넘길 수 있을까. 그때

아랫집 남자가 쳐들어왔다.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로우셨단다. 옳거니, 구해달라고 집 안으로 들였더니 불법 숙박업소로 당장 경찰에 신고한단다. 그럴 수는 없다! 결국 이 남자를 기절시켜버렸다. 아뿔싸. 이제 집주인인 그녀도 손님과 같은 처지가 됐다. 누군가를 해하고 만 것이다.

신고해도 죽고, 신고 안 해도 죽는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신고하면 그녀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신고를 안 하면 함께 죽자고 번개탄을 끌어안고 달려드는 손님을 막을 재간이 없다. 화장실 욕조에 폭 잠긴 저 시체는 또 어찌고. 기절한 아랫집 남자는 또 어떡한단 말인가. 하루아침에 햄릿 맛먹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집주인!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이 꼬인 것일까.

지켜야 할 보물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탈날 것 같은 애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7. 화성은 빨강지 않다 (최상운)

주제 및 집필의도	<p>본래 삶과 고통을 다뤄왔던 예술의 경향은, 특히 오늘날 와서는 어떠한 사회윤리적 기능들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만들고 공유하는 행위는, 참여하는 모두를 총체적인 선의의 과정에 합류시킨다. 하지만 그 구현의 양상이 정묘해질수록, 그 토대가 됐던 삶과 고통은, 역류해버린 구현과정에 용해당할 수도 있다. 오늘날 고통의 예술이 진정 윤리적 기획이 되려 한다면, 예술의 선의가 도리어 자신을 소외시키는 데까지 치달는, 저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본 작품은 관련된 대안은커녕 상황조차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p> <p>'과거를 버리면서, 혹은 동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을 나아가는가'라는 피상적인 주제는, 상기한 집필의도와 무관하게 전개된다. 둘 사이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알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써 어떤 양식으로도 구현될 수 없는, 모든 작품 밖 삶과 고통의 윤리적 해소에 대해, 수용자 각자만의 되짚음이 일어나기를 필자는 희망했다.</p>
등장인물	<p>현구: 40대 후반 남성; 길들여진지 오래돼 희미하게만 남은 서남 역양 선혜: 30대 중반 여성 소영: 10대 후반 여성 정연: 30대 후반 남성; 습관적으로 코를 훌쩍인다 노용: 60대 후반 남성 여왕: 중년의 여성 목소리들(남/여): 상황마다 변모하는 미출현의 캐릭터들</p>
시놉시스	<p>이것은 언젠가 밀려났던 사람들이, 먼 곳을 향해 각자 도달할 곳을 찾다가 좌초하는 이야기이다. 어쩌다가?</p> <p>2037년, 화성에 처음 사람이 도착해서 개발기지를 세운지 12년이 지났다. 이에 지속적으로 이주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지원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주민들의 장기적인 정착생활을 위해, 사회구성의 다양성까지 재현하려는 것이다. 귀환할 여건이 아직 안 된다면, 귀환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 그곳엔 닉네임'붉은 눈의 여왕'이란 한 화성인이 있다. 전부터 그러한 화성의 일상 이야기를, 전파에 실어 지구에 들려준다.</p> <p>중고차 딜러 현구, 사회복지사 선혜, 개인방송인이자 재수생 소영, 한량 정연, 그리고 말없는 노용 한 사람이 각자의 일상을 살다 화성이주를 결심한다. 그들은 동의절차를 마치고 한 데 모인다. 적응훈련 과정의 일부로써 합숙까지 치러야 하는데, 처음부터 뼈격댄다. 그러다 정연의 제안으로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한다. 화성공동체가 지구생활의 장기적인 재현을 목표로 한다면, 지구에서 서로에게 하듯 한 무관심까지 재현해야만, 훈련도 장차 화성에서의 삶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써, 그들은 각자의 과거를 드러내기를 금지하기로 한다. 저마다 지구에서의 삶을 포기할 정도의 과거라면, 모여서 감당하기는 얼마나 버겁겠는가?</p>

몇 개월의 훈련을 거쳐 그들은 모두 선발된다. 로켓 발사 전날 밤에 파티를 연다. 그 자리엔 첫 만남 때와 달리 화기마져 감돈다. 불안한 마음을 나누며 사로를 다잡아주는 가운데 노옹이 뒤늦게 얼굴을 비춘다. 희망자들은 그에게 못다 표현한 동질감을 전하려 하지만, 그는 묵묵히 돌아갈 뿐이다. 파티가 끝나 다들 그대로 잠든 자리에 노옹이 다시 나타난다. 그는 소영이 전부터 읽던 역사 교과서의 페이지를 뒷부분부터 뜯어서 먹는다. 그것을 목격한 소영은 그 인상에 압도당해 달아난다.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던 현구는, 노옹의 과거를 안다는 걸 암시하며 반응을 기다린다. 그러나 여전히 노옹의 뒷모습만 눈으로 좇을 수밖에 없다.

날이 밝자 희망자들은 로켓에 탑승한다. 각자 짐을 풀다가, 노옹이 우주선의 자기 방에 올라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정연은 그 사실을 바깥에 알리려는 소영과 선혜를 만류한다. 발사시기를 놓치는 데다, 공동생활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여태 꿈꿔온 화성행이 좌절될 거라고 그들을 설득한다. 그들은 노옹의 죽음을 감춘 채 출발한다.

이틀 후 정연은 동행자들을 불러 모은다. 가는 내내 노옹과 함께하는 것이 꺼림칙하니, 비상탈출용 셔틀 두 개 중 하나에 실어 우주공간에 버리자는 것이다. 선혜는 모호한 찬성의 기색을 띠고, 현구는 침묵만 할 때, 소영은 반대한다. 그들의 냉담함을 비난하고, 노옹을 자기 방에 두겠다고 하며 틀어박힌다. 직후 현구가 반대하고 나서서, 냉장고에 안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연이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비우러 갈 때, 선혜와 현구는 서로의 입장을 해명한다. 그들은 이제껏 억눌러온, 고통받고 밀려난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두려워한다. 그 마음에 떠밀린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나눔으로써 위안받으려 한다.

정연은 숨어서 그 광경을 엿본다. 환멸감에 잔뜩 예민해져 나타난 소영은, 현구와 선혜를 헐뜯고 정연의 열등감을 부추긴다. 정연은 자기연민과 혐오를 공유한 동료로서 소영과 통해보려 한다. 그러나 암시로만 말해지는 불행들과, 최근의 충격으로 다친 소영의 마음은, 뉘게라 할 것 없는 양갓음만을 꿈꾼다. 정연은 홀로 좌절한다.

화성 도착 며칠 전까지, 희망자들 사이에 감도는 분위기는 황량하기만 하다. 정연은 흐트러진 채 잠으로 시간을 보내고, 소영은 짙은 병색을 띠고 외따로 초조해한다. 선혜는 노옹의 존재가 모두의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했다고 여긴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안 좋게 번지지 않도록, 현구와 정연이 노옹을 탈출셔틀에 실으러 간다.

소영은 불현듯 현기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는다. 선혜는 소영을 간호하다 그녀가 임신했음을 안다. 현구와 정연은 저마다 부정하니, 배신감과 인간혐오에 선혜는 이성을 잃는다. 남자들이 말다툼할 동안 기계실로 내려가, 분리하면 폭탄이나 다름없는 로켓의 동력전지를 어딘가에 숨기고 온다. 그리고 협박한다. 화성마저 죄의식이 대물림되는 곳으로 만들 수 없다고, 죄 지

은 자는 도착하기 전에 제 발로 내리라고, 그러지 못할 바에 모두 공중분해 되자고 한다. 현구가 스스로 내리려 할 때, 보다 못한 소영이 아이 아버지를 밝힌다. 전에 노옹을 버리느냐 함께하느냐 다뤘던 밤, 소영은 비감에 고조됐었다. 세상에 대한 뒤틀린 원망과 함께, 그 굳은 육신에서 흘러나온 체액을 자기 몸 안에 남겨둔 것이다.

혐의가 풀렸는데도 현구는 내리려 한다. 충격에 겨워, 겨우 소영을 자리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그는 고백한다. 소영의 아이 아버지는 자연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고. 그는 세상에 핍박받은 인간의 대표는커녕, 오래전 몰락하고 잊힌 유력자였으며, 많은 삶을 밀려나게 한 큰 사건의 숨은 책임자였음을 환기시킨다. 그의 죽은 육신은 땅끝에 가게 된 이들의, 나중 삶을 정당화해줄 물증이 될 거라고 부르짖는다. 거칠디 거칠게, 모든 규칙을 깨면서.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공감하지 않는다. 죄를 자처하면서도 미약한 희망을 붙들고 있는 현구를, 선혜는 살인자라고 매도할 뿐이다.

그때 노옹을 옮겨냈던 탈출셔틀이 발진한다. 소영은 다른 희생자들과의 동반을 거부하고 따로 화성으로 향한 것이다. 알게 된 선혜는 절규한다. 동력전지를 못 찾도록 숨긴 곳이, 노옹을 안치한 가방이었기 때문이다. 민감한 폭탄과도 같은 물건을 싣고, 소영은 무사히 불시착할 수 있을 것인가? 희망자들이 채 책임을 묻고 절망하고 낙관하기도 전에, 동력원을 잃은 로켓이 언제라도 공중분해 될 거라는 경고음이 들려온다. 현구는 남음으로써 짓값을 치르려 한다.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혜도 남음으로써 자기 몫을 짊어지려 한다. 정연은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못내 안타까워하며 혼자 탈출한다.

로켓과 소영의 셔틀은 폭발했다. 정연만 무사히 도착한 화성 기지엔 아무도 없다. 미래의 방문자를 위해 미리 녹음해둔 여왕의 메시지; 화성공동체는 예전에 멸망했다. 그 연유는 몹시도 참담한 것이라,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재건하러 온 이들이 우리 행적에 영향 받아, 다른 모습으로라도 그것이 반복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유일한 화성인이 된 정연은 이제 없는 동행자들을 목 놓아 부른다. 그때 지구에서 교신이 걸려와 이주희망자들의 안녕을 묻는다. 그리고 땅끝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에게 들려줄, 예의 화성의 목소리를 요구한다. 정연은 여왕을 흉내 내며 겨우 운을 떼지만, 이어질 말을 찾지 못하고만 있을 뿐이다.

8. 오르페우스의 아내 (홍진형)

주제 및 집필의도	<p>임신과 출산이라는 행위는 한 여성을 남편에게 종속시킨다. 그리고 임신을 하는 순간 사회인으로서 여성의 생활은 중단돼 버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회는 자아실현, 커리어의 성공과 같은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파한다. 한 사람에게 양립하기 힘든 가치를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모순된다고 생각했다.</p> <p>하지만 임신과 출산은 인류라는 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돼야 하는 행위다. 인류라는 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임신과 출산을 여성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SF적 상상력이 필요했다. 복제인간과 태아의 체외 배양이라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을 소재로 한 생명체의 모체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의 충돌에 대해 쓰고 싶었다.</p>
등장인물	<p>유리: 40대 여성. 생명공학자. 복제인간. 태수의 아내. 제호의 누나</p> <p>태수: 40대 남성. 생명공학자. 유리의 남편. 제호의 친구.</p> <p>제호: 40대 남성. 생명공학자이자 사업가. 유리의 동생. 태수의 친구.</p>
시놉시스	<p>그린란드 최북단 마을에 한국인 유리와 태수 부부가 살고 있다. 부부는 일 년 전까지만 해도 복제인간 연구에 참여했던 유능한 생명공학자였다. 하지만 연구 중 진행된 인체 실험이 문제가 되어 부부는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 유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가 전부다.</p> <p>사실 태수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와 함께 그린란드로 온 유리가 바로 태수가 만들어 낸 복제인간이다. 원래의 유리는 일 년 전 있었던 인체 실험의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리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다. 태수는 불법 인체 실험에 대한 비난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게 아니라 복제인간 유리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그린란드에 왔다.</p> <p>자기 정체를 모르는 유리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유리는 동생 제호에게 편지를 보내 남편이 과학자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6개월 전 죽은 누나의 편지를 받은 제호는 태수가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바로 그린란드로 찾아와 태수에게 복제인간 연구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p> <p>태수 역시 진심으로 연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를 다시 시작할 경우 복제인간인 유리는 실험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태수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호의 제안을 거절한다. 제호는 태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한 투자자들까지 그린란드로 데려오지만 그래도 태수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다. 그때 유리가 혼자 돌아가겠다는 폭탄 발언을 한다. 그녀는 오래 전 자신이 주도해 진행했던 태아의 체외 배양 연구를 재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태수는 그녀의 귀국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힌다.</p>

태수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귀국을 결심한다. 그리고 태수의 염려대로 재개되는 복제인간 연구의 실험대상이 된다. 태수 역시 유리를 따라 한국에 돌아와 복제인간 연구에 합류한다. 태수는 유리의 신체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한 실험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유리는 연구의 최고책임자인 제호에게 자신 역시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면 그녀의 연구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실험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제호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준다.

태수와 유리,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제인간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해외의 경쟁 연구소로 인력 유출 사태가 벌어진다. 제호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지지부진한 연구 상황에 지친 투자자들이 연구소의 자산인 복제인간, 즉 유리를 경쟁 연구소에 팔아넘기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급기야 제호는 경쟁 연구소에 넘기느니 우리가 직접 유리를 실험하겠라며 그녀의 몸에 칼을 대려 한다. 그때 유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들에게 복제인간의 존재를 알리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해서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고, 국가의 개입을 유도해 연구소의 자산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얘기한다.

기자회견 당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는 유리의 제안과 달리 태수는 과거의 불법 인체 실험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일부만을 고백한다. 유리는 직접 자신이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하지만 유리는 복제인간 연구에 대해서는 말하지 그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이 몰래 연구한 태아의 체외 배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인터넷에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 연구를 계속 해달라고 얘기한다. 제호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을 마음대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유리는 그런 제호에게 연구소의 자산으로 등록된 자신에게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냐 질문한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은 유리의 바람과 달리 그녀의 태아 체외 배양 연구가 아닌 복제인간의 등장에만 쏠린다. 그리고 복제인간 유리는 국가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국가 연구소로의 이동이 결정된다. 제호는 계속 연구의 최종 책임자로 남기 위해 국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태수는 함께 옮겨가지 않는다. 유리의 태아 배양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과거에 행해진 인체 실험이 유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을 강요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태수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유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는다. 유리는 실험실 컴퓨터에 남아있는 유리의 신체 데이터를 완전히 소거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신체에 문제가 생겨도 대체할 장기를 제작하지 못하겠는데 괜찮겠냐고 태수가 다시 물어본다. 유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태수는 그러겠노라고 대답한다.